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감 영향요인 연구

김연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Factors Affecting Marital Satisfaction among Vietnamese Female Marriage Immigrants

Yoen-Soo Kim

Associat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Baekse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베트남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감에 관한 연구로서,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한국인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여성의 긍정적 내적자질로서의 자아효능감, 남편과 지인으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 그리고 문화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결혼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검증하였다. 표집 방법으로는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연구대상자는 서울, 경기 및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출신 여성결혼이민자 201명이었다. 4단계로 이루어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최종모델에서 결혼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의 연령($\beta = -.18, p < .01$), 사회적지지($\beta = .61, p < .001$), 문화적응 스트레스($\beta = -.24, p < .001$)로 나타나 남편의 연령이 젊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할수록 결혼만족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상의 변인들의 결혼만족감에 대한 설명력은 58.6%로 높게 나타났으며,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감 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에 관해 제언하였다.

주제어 :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 결혼만족, 사회적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 다문화가족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ich factors affect marital satisfaction among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s focusing on the demographic background,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acculturation related variables. Purposive sampling was conducted for the study and 201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s participated in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through Seoul, Gyeonggi, and Chungcheong area's social service agencies. The results of 4 step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age of woman's husband($\beta = -.18, p < .01$), social support($\beta = .61, p < .001$), and acculturative stress($\beta = -.24, p < .001$) impacted on the woman's marital satisfaction and these variables showed 58.6% explanatory power at the final regression model. Based on these results, social services and social policies for the enhancement of Vietnamese wife's marital satisfaction were discussed.

Key Words :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s, Marital Satisfaction, Social Support, Acculturative Stress, Multicultural Family

* 본 논문은 2016년 백석대학교의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Received 30 September 2016, Revised 3 November 2016
Accepted 20 November 2016, Published 28 Novem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Yoen-Soo Kim(Baekseok University)
Email: yskim@b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2000년대 이후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족은 다양한 가족의 한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제결혼이 전체 혼인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13.6%에 이르렀으며, 그 이후 2010년 10.5%, 2014년 7.6% 등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1]. 그러나 이와 함께 년도 별 총 이혼건수 대비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11.5%, 2014년 9.8%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1] 다문화가족의 결혼안정성 증진이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서비스 제공에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85.3%가 여성이며, 출신국별로는 중국이 45.3%, 베트남이 26.8%, 일본이 8.2%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2]. 그러나 중국출신 이민자 가운데 16.3%가 한국계 중국인인 것을 감안한다면[2], 베트남출신 여성결혼이민자가 다른 문화권으로부터 유입된 가장 큰 이민자 인구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의 경우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가 심하며, 남부 농촌지역의 경우 여성들의 학력수준이 낮고, 남성들이 도시로 진출함에 따라 남녀 간 성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여성들이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현재의 빈곤한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3]. 이러한 베트남 내 사회경제적 이유와 국내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한 한국남성의 결혼욕구는 국제결혼중개업을 성행시키며 국내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의 급증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학력수준이 낮고 경제적 동인이 크며, 언어와 문화가 상이한 국가로의 결혼이민의 선택은 만족스럽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실제 결혼이민자 대상 결혼만족 연구에서 중국 조선족 출신 이민자와 비교 시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가 결혼에 불만족할 확률이 높고 남편의 경우도 베트남 여성의 남편이 결혼에 불만족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어[4] 베트남이민자들의 결혼안정성 증진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결혼만족감이란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재 상태에 대한 비교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주관적 평가로서[4], 결혼생활의 질이나 안정성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

개념이다. 이는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욕구, 기대, 바람 등이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에 관한 평가이기도 하며[5], 결혼생활의 즐거움과 행복 등과 같은 주관적 감정적 상태가 반영된 개념이다[6]. 또한 결혼만족감은 결혼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부부의 결혼내적 및 외적 체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7].

국내에서는 결혼이민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결혼생활 적응과 만족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이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충북지역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결혼만족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결혼만족 평균점수가 6점 척도에서 4.18점(s.d=.84)으로 산출되어 만족의 수준이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결혼만족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부부의 응집력과 한국어 구사 등이 주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8]. 서울지역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결혼행복감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결혼행복감 평균이 10점척도에서 7.33점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족관계, 남편의 아내문화이해정도, 가정폭력 유무, 그리고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유의미하였다[9]. 이와 유사한 결과로 서울경기지역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영향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는 결혼만족을 증진시키는 영향요인으로 검증되어[10] 결혼만족에서 이 두 변인의 고려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북지역 결혼이민자 대상 연구에서 결혼만족도는 이민자 본인연령, 직업유무,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가족 및 친척의 지지에 의해 유의미한 영향을 받으며, 남편의 연령, 결혼기간, 한국어 능력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다[5].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결과들이 도출되었는데,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연구에서는 여성의 학력, 결혼기간, 자녀유무 등이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으나[11], 권복순과 차보현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다[12], 자녀유무와 관련해서는 이민자가 아닌 일반인 대상 연구에서 첫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녀가 없는 부부보다 결혼행복감이 더 낮게 나타난다는 결과보고도 있어[13], 후속연구를 통한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다.

이 밖에도 결혼만족과 유사한 개념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생활 질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결혼생활의 질에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효과가 큼이 확인되었으며[14], 농촌거주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이 도시거주자보다 높음이 보고되어[15], 결혼생활의 질 관련 지역 간 편차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에 관한 34편의 연구물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지지,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 남편과의 연령차이 등이 여성이민자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6], 결혼만족 연구에서 이들 변인의 고려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은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결혼만족연구에서 연령이나 학력, 직업유무 등 이민자 자신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더불어 건강한 자아기능, 그리고 남편의 연령, 학력 등과 같은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 및 친척 등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통합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해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국가로부터 온 여성결혼이민자들을 함께 분석하고 있어 동일한 문화권으로부터 온 특정 이민자집단의 결혼만족 경향성을 연구하는 데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중반이후 결혼소개업소 등을 통해 많은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로 유입되어 큰 인구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베트남 여성이민자를 대상으로 결혼만족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가 형성한 다문화가족의 결혼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원 방안 제시에 궁극적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베트남출신 여성결혼이민자로 표집에는 의도적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이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모집은 서울, 경기 및 충청지역의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복지관 등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17개소의 기관을 통해 이루어졌으

며, 이 기관을 이용하는 베트남출신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 조사연구에 동의하고 자발적 참여를 결정한 자료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무응답 등이 많은 자료를 제외하고 총 201명의 응답자료가 연구결과 분석에 사용되었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로 첫째, 결혼만족감의 측정에는 Kansas 결혼만족척도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가 사용되었다[16]. 이 척도는 결혼에 대한 만족을 결혼생활, 남편 및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으로 간단하게 측정하는 장점이 있는 도구로 7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둘째, 자아효능감은 Park이 개인의 건강한 자아기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총 6문항으로 간결하게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기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 .79로 산출되었다[17]. 셋째, 사회적 지지는 Zimmet et al(1988)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활용하여[18] 가족 및 친구 등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할 4문항과 남편으로부터 받는 지지를 측정할 4문항으로 총 8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측정은 5점 리커트척도로 이루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 .90이었다. 넷째, 문화적응에 대한 측정은 Kim이 개발한 한국문화적응척도(총 26문항)와 모국문화유지척도(총 19문항)를 사용하였다[19]. 이 척도는 5점리커트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문화적응 수준과 모국문화유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한국문화적응척도 .93, 모국문화유지척도 .85로 산출되었다. 다섯째, 문화적응스트레스는 Sandhu and Asrabadi의 척도 가운데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가장 부합하는 영역인 차별감, 향수병, 문화충격을 측정하는 총 14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20]. 측정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하고,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여섯째,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는 연령, 결혼기간, 교육년수, 거주지역(0=농촌, 1=도시), 직업유무(0=없음, 1=있음), 자녀유무(0=없음, 1=있음)가,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는 연령, 학력(0=고졸이하, 1=전

문대졸이상), 직업(0=없음, 1=있음)이 사용되었다.

2.3 분석방법

자료 분석방법에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분석, 신뢰도분석 및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1단계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연령, 결혼기간, 교육년수, 거주지, 직업 및 자녀 유무), 2단계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연령, 학력, 직업 유무), 3단계 자아효능감과 사회적지지, 그리고 4단계 문화적응 관련 변인(한국문화적응, 모국문화유지, 문화적응 스트레스)이 투입되어 결혼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유무는 VIF값과 tolerance값으로 검증하였으며, 분석결과 tolerance 값은 .51-.94, VIF값은 1.06-1.93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5.9세로 20대 82.5%, 30대 16.5%, 40대 이상 1%로 대다수가 20대로 구성되었다. 결혼상태는 초혼이 96%, 재혼이 4%로 대부분이 초혼이었으며, 최종 학력은 초졸 이하가 15.5%, 중졸이 37%, 고졸이 30%, 전문대졸이상이 16%로 과반수 정도가 중졸이하의 학력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이민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혼기간은 평균 36.7개월로 약 3년 정도였으며, 거주지역은 대도시가 25.4%, 중소도시가 53.8%, 농어촌 및 산촌이 20.3%로 도시거주자가 과반수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자녀가 있는 자는 63.8%, 직업이 있는 자는 18.3%였다.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령은 평균이 42.1세로 연구대상자인 여성들과의 평균 연령차이가 16.2세로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남편의 학력은 중졸이하가 25.4%, 고졸이 32.3%, 전문대졸이 14.8%, 대졸이 23.8등이었으며, 직업이 있는 자가 90.4%, 조사 당시 실직상태인 자가 9.6%로 나타났다.

3.2 결혼만족도 수준

연구대상자의 결혼만족도 평균은 7점척도에서 평균

5.33점으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준편차가 1.26점으로 응답자간 점수에 큰 편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대상자 중 결혼만족 평균이 3점 이하로 불만족 수준이 높게 나온 집단은 전체의 5.5%, 평균이 3.1~4.99점으로 불만족도 만족도 아닌 집단이 32.2%로 나타나 이들의 결혼안정성에 취약성이 있을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Table 1>.

<Table 1> distribution of marital satisfaction

categories of mean	N	valid %	total mean
lower than 3(1~3)	11	5.5	5.33 (s.d=1.26)
3.1~4.99	64	32.2	
higher than 5(5~7)	124	62.3	

* missing=2

3.3 결혼만족도 영향 요인

연구모형에 사용된 독립변인인 자아효능감, 사회적지지, 한국문화적응, 모국문화유지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descriptive analysis of independent variables

	minimum	maximum	mean	s.d
self-efficacy	1.50	5.00	3.29	.53
social support	1.13	5.00	3.62	.74
acculturation to Korean culture	1.23	4.88	3.58	.55
maintenance of mother culture	1.89	4.74	3.49	.51
acculturative stress	1.36	4.79	2.77	.57

연구대상자의 결혼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4단계로 구성된 위계적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연령, 결혼기간, 교육년수, 거주지역, 직업 및 자녀 유무를 투입한 결과 거주지역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23, p<.01$), 도시지역에 살수록 결혼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단계에서는 연구대상자의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연령, 학력, 직업유무가 추가되었으나 이들 변인들의 결혼만족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자아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변인이 투입되었는데 자아효능감($\beta=.14, p<.05$), 사회적 지지($\beta=.65, p<.001$) 모두 결혼만족감에 유의미한

<Table 3> Influencing factors on marital satisfaction among Vietnamese female marriage immigrants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β	t	β	t	β	t	β	t
age	-.12	-.133	-.09	.95	.00	.03	.04	.65
marital period	-.01	.12	.01	.16	-.07	-.86	-.07	-.98
length of education	-.09	1.09	-.10	-1.14	-.04	-.76	-.04	-.68
residence area	.23	2.78**	.219	2.531*	.03	.59	.00	.06
having occupation	.07	.87	.06	.67	.05	.89	.07	1.21
having children	.01	.14	-.00	-.08	.04	.64	.02	.34
husband's age			-.04	-.48	-.17	-2.46*	-.18	-2.90**
husband's education			.07	.84	-.01	-.21	.00	.06
husband's occupation			.11	1.32	-.04	-.69	-.07	-1.25
self-efficacy					.14	2.119*	.09	1.45
social support					.658	9.575***	.61	9.16***
acculturation to Korean culture							.07	1.05
maintenance of mother culture							-.11	-1.87
acculturative stress							-.24	-3.79***
R ²	.089		.111		.552		.628	
Adjusted R ²	.047		.049		.513		.586	
R ² change	.089		.022		.441***		.077***	
F	2.14		1.79		14.20***		14.95***	

*p<.05, **p<.01, ***p<.001

영향력이 있음이 검증되었으며, 남편 연령($\beta=-.17, p<.05$)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4단계에서는 문화적응 관련변인으로 한국문화적응, 모국문화유지, 문화적응스트레스 변인이 추가되었다. 분석결과 최종적으로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연령($\beta=-.18, p<.01$), 사회적 지지($\beta=.61, p<.001$), 문화적응스트레스($\beta=-.24, p<.001$)로 검증되었다. 즉, 연구대상자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의 연령이 낮을수록, 남편, 가족, 친구 등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연구모델에 사용된 모든 변인들 중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에 갖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상과 같은 전체 모델은 Adjusted R²값이 58.6%로 결혼만족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3>.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집단 가운데 베트남출신 여성결혼이민자에 초점을 두고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기존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3] 연구대상자인 베트남여성이민자들의 학력수준은

초졸 이하가 15.5%, 중졸이 37%로 전체 대상자의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고졸보다 낮은 학력수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한국에서의 결혼생활 적응과 관련하여 문화습득능력이나 자녀양육 등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다른 집단에 비해 클 수 있음이 예상되었다.

연구대상자의 결혼만족도와 관련해서는 7점 척도에서 평균이 5.33(s.d=1.26)점으로 6점 척도로 이를 측정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평균 4.18점(s.d=.84)과 비교할 때[8] 베트남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의 결혼만족 수준이 여러 출신국들을 모두 포함한 연구 결과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선행연구결과와 비교 시 응답자 간 편차가 1점 이상으로 크게 나타나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차이가 큼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연구대상자 가운데 결혼생활에 불만족하거나(5.5%), 만족도 불만족도 아닌 자(32.2%)의 비율이 전체의 37.7%로 파악되었는데, 이들 집단의 경우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될 때 결혼안정성이 취약해지고 별거나 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결혼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서는 여성이민자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개인의 자아기능, 사회적 지지 및 문화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이 모두 함께 투입되어 상대적 영향력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결혼만족에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 가족 및 친구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로 나타나 기존 연구결과들[5,6,10,11] 통해 제시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결혼만족을 저해하는데 기여하는 영향요인으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남편의 높은 연령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기존 연구결과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검증된 바 있어[6,9,10,11], 이민자라는 특성이 갖는 문화적응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문화적응 관련 변인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 외에도 여성이민자의 문화적응 자체를 평가하는 한국문화적응과 모국문화유지정도를 측정하여 결혼만족에 대한 영향력을 함께 평가하였다. 그러나 연구 결과 문화적응 수준이나 정도보다는 이로 인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큼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다양한 변인들 가운데 최종 모델에서 남편의 연령이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검증된 것은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 연구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하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베트남여성과 남편 사이의 평균 연령 차이는 16.2세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에 기인한 가치관 및 생활방식의 차이, 세대와 문화차이 등이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할 것이 예측되며, 이러한 차이는 남편의 연령이 높을수록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에 더하여 베트남여성이민자의 낮은 학력수준은 이러한 갈등이나 차이를 풀어갈 수 있는 소통의 기술에 제한을 가질 수 있으므로 남편의 연령이 높고, 부부간 연령차이가 큰 베트남여성과 한국인 남성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의 결혼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수준일 수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매우 절실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확률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서울, 경기 및 충청 지역에 한해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연구대상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복지관 등

을 이용하는 자로 선정되어 이러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자들이 보이는 결혼만족과 관련된 변인들의 수준을 연구결과에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다문화관련 사회적 지원 서비스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베트남여성이민자들을 포함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베트남여성이민자들이 보이는 남편과의 큰 연령 차이는 향후 결혼생활의 지속과정에서도 남편이 여성보다 훨씬 빨리 노년기로 접어들어 부부관계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야기될 것이 예측되므로 이들 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의 다수는 결혼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대상자의 37.7%에 해당하는 자들은 결혼에 만족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집단의 결혼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해서는 특히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그리고 남편의 연령이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최종모델의 결혼만족에 대한 설명력은 58.6%로 높게 산출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째, 남편의 연령이 40대, 50대로 남편의 연령이 많은 여성이민자에 대한 관심이 보다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베트남여성과 남편과의 연령 차이는 평균 16.2세로 한국의 일반부부들과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크게 나타났으며, 남편의 연령이 높을수록 베트남여성이민자의 결혼만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베트남여성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제공에 있어 남편의 연령이 많은 사례들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의 결혼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별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둘째, 베트남여성 이민자가 남편, 가족, 친구 등 지인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키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이들의 결혼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사회적 지지로 나타난 것은 이민자로서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지역사회에서 결혼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여성 이민자의 결혼에 대한 만족감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 사회적 지지임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 이민자들이 다양한 지지체계들로부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베트남여성 이민자 가운데 사회적 지지체계가 취약한 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요청되며, 가족체계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제한적일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사회복지관 등 공적기관의 실무자들이 직접적인 지지를 제공해주거나 또는 자조집단 모임 등을 통해 새로운 지지체계를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 개입방안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베트남여성 이민자의 문화적응 관련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들에서 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감이나 정신건강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는데[21], 이러한 문제가 야기될 경우 결혼만족감뿐만 아니라 결혼안정성이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개입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민자들이 문화적응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차별감이나 편견 등을 해소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한데, 이민자를 바라보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시선이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민자들이 정서적 외로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지체계를 마련해주는 것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좋은 개입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지역에서 생활하는 베트남여성 이민자의 결혼만족감 증진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보다 요청된다. 도시지역과 비교할 때 농어촌 지역은 지역사회의 문화적 특성상 전통성이 보다 강하고 이민자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공적인 사회적 지지체계의 기반이 부족하다. 또한 이민여성들이 결혼생활 유지와 관련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도시지역에 비해 제한적이므로 특히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하는 바이다.

ACKNOWLEDGMENTS

Funding for the study was provided by grant from Baekseok University in 2016.

REFERENCES

- [1]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4 The State of Marriage and Divorce from <http://www.kostat.go.kr>, 2015.
- [2] Ministry of Justice, Korea Immigration Service Monthly Immigration Report from <http://www.immigration.go.kr>, 2014, 5.
- [3] H. J. Kim, "Cross-border marriages between Vietnamese woman and Korean man: The reality and problem." *East Asia Study*, Vol. 52, pp. 219-254, 2007.
- [4] D. H. Seol & G. S. Lee, "Family resource, marital satisfaction, divorce proneness in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in Korea." *Community Studies*, Vol. 13, No. 1, pp. 117-147, 2011.
- [5] J. O. Ham & I. J. Cho,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on marital satisfaction in married immigrant women in Jeonbuk area." *Family and Culture*, Vol. 24, No. 3, pp. 65-97, 2012.
- [6] M. J. Kim, & D. M. Yeum, "A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n marital satisfaction of the married immigrant women."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 31, No. 3, pp. 1-25, 2015.
- [7] T. N. Bradbury, F. D. Fincham, & S. R. H. Beach, "Research on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62, pp. 964-980, 2000.
- [8] S. Y. Chung & H. M. Yoon, "Marriage-based immigrant woman in Chungbuk province and their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11, No. 1, pp. 37-49, 2007.
- [9] Y. S. Kim, "A study on the marital happiness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 in Seoul."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21, pp. 217-252, 2007.
- [10] S. J. Lee, Y. S. Park, & J. Y. Song, "The effects

- of acculturative stress on marital satisfaction of immigrant women who married to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 30, No. 4, pp. 1-25, 2014.
- [11] S. M. Yang, & H. S. Chung, “Variables affecting the adjustment of marital life and satisfac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 of rural in Korea.”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11, No. 3, pp. 223-252, 2006.
- [12] B. S. Kwon, & B. H. Cha, “The impact of communication and cultural identity on marital satisfaction among Kosian housewives in rural a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8, No. 3, pp. 109-134, 2006.
- [13] P. L. Dalgas-Pelish, “The impact of the first child on marital happiness.” *Journal of the advanced nursing*, Vol. 18, pp. 437-441, 1993.
- [14] H. S. Kim, H. J. Kim, & J. H. Oh, “The determinants of marital quality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The importance of life stress and social support.”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34, No.1, pp. 27-51, 2011.
- [15] O. N. Kim, “A study on marital conflicts and abuse of immigrant women—focusing on socio-cultural variabl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18, pp. 33-76, 2006.
- [16] W. R. Schumm, L. A. Paff-Bergen, R. C. Harch, F. C. Obirah, J. M. Copeland, L. D. Meens, & M. A. Bugaighis.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8, pp. 381-387, 1986.
- [17] Hyun-Sun. Park, “The school resilience of Korean adolescents in poverty.” Ph. 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8.
- [18] G. D. Zimet, N. W. Dahlem, S. G. Zimet, & G. K. Farley,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52, pp. 30-41, 1988.
- [19] Y. S. Kim,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on scale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The Women’s Studies*, Vol. 81, No. 2, pp. 103-146, 2011.
- [20] Sandhu, D. S., & Asrabadi, B. R., “Development of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Vol. 75, pp. 435-448, 1994.
- [21] J. Y. Ha, & J. Y. Kim,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in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19, No. 4, pp. 254-264, 2103.

김연수(Kim, Yoен Soo)



- 199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사)
- 199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석사)
- 200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관심분야 : 가족, 의료 및 정신보건 사회복지
- E-Mail : yskim@bu.ac.kr